

# 순례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오늘은 어린이주일!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천국시민 양성을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교회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교육1국, 각 부서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영아부(부장:이갑연 권사)와 유아부(부장:김세호 안수집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의 날"이란 주제로 에어 바운스, 페이스페인팅, 펀치 3개의 코너 활동을 진행합니다.

유치부(부장:한대석 안수집사)는 '사랑의 하트 주먹밥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사랑만 받는 날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년부(부장:이승준 안수집사)는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하며 초등부(부장: 임대중 안수집사)는 '늘벗공원 야외예배'를 진행합니다. 자연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뛰어 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pecially 오늘 식사는 이계홍 장로님께서 정성

껏 만들어주신 짜장면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즐거운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중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제16대 장로선거 후보 10명 선출을 위한 특별 제직회

- 오늘 5월 7일(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 -

오늘(5월 7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직회가 열립니다. 이번 특별 제직회에서 5월 21일(주일)에 실시될 16대 장로선거를 위해 후보 10명을 선출하여 당회에 추천하게 되며, OMR 전산투표를 통해 실시됩니다.

제직회에서 투표하게 될 장로선거 예비후보자 303명의 명단은 지난 주 순례자 별지로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회 장로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교회 교적에 예배출석자로 분류된 안수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하며(당회에 예비후보 사퇴를 요청한 4명 제외),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최소 시무 기간이 2년 이상 남지 않은 1953, 1954년생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중 40세 이하인 1983년 5월 20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됩니다.

오늘(5월 7일) 제직회에서 선출되는 10명의 장로후보는 5월 14일(주일) 순례자에 득표순, 임직순, 연령순에 따라 후보 번호가 정해져 발표됩니다. (10명 중 개인 사정 상 사퇴자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득표순, 임직순, 나이순으로 차순위자를 올려 10명을 채웁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배수 공천된 후보자 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선출되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후 5월 21일(주일) 찬양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5명의 장로를 선출합니다. 제직회 이후 배수 공천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허락되지 않으며, 적발될 시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장로로 선출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사랑이 우리 미래 행복입니다



손달익 위임목사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전국의 교회들은 해마다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 사랑과 선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날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 성장에 유해한 각종의 문화와 사회 풍조들이 난무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의 현상은 학령 아동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교회학교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학교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쉽지 않는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30,40세대들이 신앙을 떠나면서 연쇄적으로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아 더욱 교회학교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어린이주일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첫째, 어린이 사랑의 정신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마케팅과 세속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심지어 범죄에 악용하려는 현상들도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어린이들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현실도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기성세대들의 세속주의가 빚어낸 결과들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에 맞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들을 지키려는 일의 선두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이 노인 문제나 청년들의 문제는 비교적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도 유독 어린이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문제는 10년 뒤에는 청년 문제가 되고 30년 뒤에는 중년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전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우리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랑이 우리 미래 행복 창조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둘째, '건강 가정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아동학대 건수가 37,600여 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3.7%가 부모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문제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이 일은 또 다른 폭력과 사회 문제의 씨앗들이 됩니다. 사회적 환경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들이 많더라도 아이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사랑과 관심어린 돌봄을 받는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 가정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사랑 가운데 성장한 요셉(창 37:3)은 모진 운명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숨 쉬는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 셋째, 궁극적인 결론은 '가정의 복음화'가 그 해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극도의 혼란과 흑암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배웠습니다(삿 2:10). 복음은 횡적으로 전파되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증거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종적으로 전승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최대의 지원을 통해 이 사역에 성공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다음 세대 복음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가 사랑받고 환영받는 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교회학교의 회복이 우리의 미래 행복임을 인식하고 이 모든 일을 위해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년부에서 진행한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



# 축복 하고 축복 합니다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저를 연단하시고 낮추셨으며,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넘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사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늦은 나이에 첫째 김병운을,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눈물의 기도로 둘째 김병익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부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닌, 약하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직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실수나 잘못을 하였어도, 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



조은혜 성도(3교구)  
유치부 김병운·김병익 어린이 어머니

셨던 것처럼 자신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진리와 학문에 매몰되거나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고민으로 괴롭고 힘들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되심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항상 굽어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손잡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평생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한량없는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에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신체가 자라듯 예수님의 영성을 닦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이신혜 집사(2교구)  
유년부 김이환·김서환 어린이 어머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귀한 보물, 이환이와 서환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햇살처럼 환한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로 삶에 지친 저희를 위로하심에, 때로는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저희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이환, 서환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환, 서환이의 앞날에 험한 폭풍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등대삼아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갈수록 어지럽고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며, 도움을 받기보다는 베풀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신의 기도제목을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여파로 예배에 갈급함을 느낄 때쯤,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매달 첫 주를 가족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위임목사님께서 직접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준이는 자신의 기도제목을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고 토요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에는 제일 먼저 준비하고 기다

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피곤할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배에 나서는 모습에 기특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평생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모든 손길과 찬양을 인도해 주는 학생들 및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민정 집사(5교구)  
유아부 최수아·유년부 최아준 어린이 어머니



이승준 안수집사 (유년부 부장)

교역자를 중심으로 담당 선생님들이 기도와 진정으로 잘 보살피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유년부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주일 특별 활동을 주변 친구들을 함께 초대

요즘같은 시기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지 해당 부서장을 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유년부에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소원하는 귀한 자녀들이 유년부 담당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안에서 참 기쁜 교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친구 초청 잔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올 해는 이렇게 친구들을 자주 초청할 수 있는 행사들을 자주 기획함으로써, 여러 번 자주 교회를 다녀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 교사분들부터 학생들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년부 교사들은 많지 않은 기회지만 초청받아 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하루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독교, 꿈꾸는 청년들을 품다!



청년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청년 이승만



독립신문



독립문

보통 '한국의 기독교인이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를 생각하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전에 두 차례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시기와 1905년부터 1906년 사이의 시기가 바로 이 급격한 성장의 시기이다. 장로교의 세례교인이 1895년 180명에서 1896년 2,000명으로 11배 이상 성장했을 정도로 이 시기 교세의 성장은 괄목할만했다. 그런데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그리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있었다. 전쟁이라는 위험이 교세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교회는 민중의 피난처가 되었다. 청일전쟁의 격전지였던 평양에서는 교회가 피난민 수용소가 되었고 일본군이 서울에 진주했을 때 상동병원은 성조기를 게양하고 민중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교회와 선교 병원, 그리고 학교가 전쟁 중의 피난처로 인식되면서 민중계층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이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보다 기독교의 배후에 있는 서구, 특히 미국의 힘이 버팀목을 찾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 모은 것이었다.

서서히 엘리트 계층도 교회와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청년들은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조선에 미치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이 사라지자 조선의 자주독립을 꿈꾸며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독립협회의 창설을 주도한 이는 갑신정변의 주도자

중 한 명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다 돌아온 서재필과 초대 주미한국공사의 비서관이었던 이상재, 그리고 통역관 윤치호였다. 그리고 이들 중 서재필과 윤치호는 미국 망명이나 유학을 거친 기독교인이었다.

독립협회는 1896년 4월부터 「독립신문」을 순한글로 발간하며 자주주의와 근대적 시민사회 형성을 향한 열의를 표명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 주시경, 윤치호와 같은 조선 기독교인과 아펜젤러와 할버트 선교사가 상황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발행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청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던 곳으로 사대주의의 상징적 공간이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축하였고 바로 옆에 있던 청나라 사신들을 영접하기 위한 관문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개선문을 본뜬 독립문을 건립했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자주국가 건설의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조선 왕실도 이를 기뻐하며 지원하였다.

독립협회의 활동은 충군애국에 입각한 계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새로운 정치제도를 요구하는 저항적 정치운동으로 변화했다.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고 민중의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왕실을 비롯한 수구파 세력과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졌다. 독립협회에 참여하던 고위 관료들이 활동을 중단하였고 협회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윤치호나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수구파 세력에 의해 전국의 보부상이 동원된 황국협회가 조직되었고 독립협

회와 폭력을 동반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결국 1898년 12월 고종의 명령으로 독립협회와 황국협회가 해산되면서 개혁운동은 중단되었고 독립협회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벌어졌다. 개혁적 청년들에 대한 검거는 1904년까지 이어졌다.

독립협회 출신 청년들이 한성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와 벅커 선교사는 매주 주말마다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며 상담하였다. 아펜젤러, 게이, 할버트 등의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독교 서적, 교양서적 등을 감옥에 전달했다. 선교사들이 책을 계속 반입하자 한성감옥에 도서실이 생겼다. 청년들은 도서실에 비치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며 기독교를 차츰 이해해갔다. 그리고 한 명씩 회심을 경험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기독교인이 된 이가 이승만, 이원금,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이승인, 신흥우 등이다. 이들은 출옥 후 독립협회에서 가졌던 근대 시민국가의 꿈을 계속 이어가며 상동청년학원, 신민회, YMCA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운동과 시민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한국기독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청년들의 가슴에 불어넣고 그 꿈이 꺾일 위기에 처했을 때 젊은 몽상가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교회는 꿈꾸는 사람을 만드려고 그들과 함께 꿈꾸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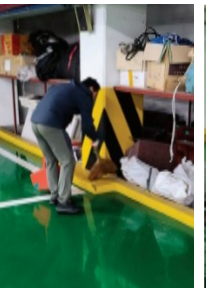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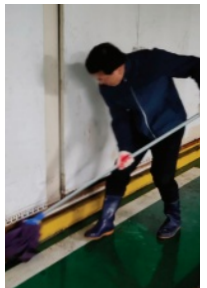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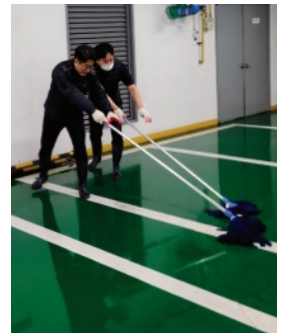


#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는 찬양위원회(위원장:최형열 장로)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5월 3일(수), 소망부(부장:백도환 안수집사)가 주최한 '2023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여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샬롬대학 워십반의 아름다운 워십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4월 29일(토) 스테반회(회장:홍창훈 안수집사)는 겨우내 염화칼슘과 먼지로 더러워진 지하 주차장 물청소를 하였습니다. 비오는 토요일 참석해 주신 많은 스테반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득녀



- 5교구 김성택 안수집사·신지에 집사 가정  
4월 26일 득녀 (김현서 아기)  
(5교구 김양숙 권사 손녀)

### 득녀



- 박선영 성도·임홍서 성도 가정  
5월 3일 득녀  
(5교구 박정선 은퇴장로·김남순 은퇴권사 손녀)

### 결혼



- 최음 안수집사(2교구 가브리엘찬양대 / 최형열 장로·김찬진 권사 아들)  
양계화 성도(가브리엘찬양대 / 박정림 권사 딸- 천호동 교회)  
5월 13일(토) AM 11:00, 서울교회 2층 본당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짜장면)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5월8일	월	대상 9-11		5월8일	월	겔 24-31	
5월9일	화	대상 12-14		5월9일	화	겔 32-36	
5월10일	수	대상 15-17		5월10일	수	겔 37-42	
5월11일	목	대상 18-22		5월11일	목	겔 43-48	
5월12일	금	대상 23-25		5월12일	금	단 1-5	
5월13일	토	대상 26-29		5월13일	토	단 6-12	
5월14일	주일	대하 1-5		5월14일	주일	호 1-14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 권사회가 함께 하는 전도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3.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평화와 구원을 갈망하는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                           |
|--------------------------|---------------------------|
| ◇ 부목사<br>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시무장로<br>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 ◇ 전도사<br>박미라 최종국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 준전임전도사<br>강남희 손주찬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 ◇ 교육전도사<br>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 협동목사<br>전재홍 양정호        |                           |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